산·가람 하나된 한폭 동양화

◇뒷산의 전체적인 형국에 맞추어 건립된 내소사 대웅보전. 널찍한 평지와 뾰족한 뒷산에 대응되는, 오똑 솟아오른 수직적인 모습을 하고있다.

가람의 장면들 25

부안 내소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의 이름있는 고찰, 내소사는 바위들이 뾰족뾰족 솟은 능가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보물 29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의 견고한 짜임새도 불만하지만, 내소사의 진짜 풍경은 이 웅장한 능가산 절벽들과 어우러진 가람 전체의 조화일 것이다. 옛 스님들이 가람의 터를 정하고, 건물들의 위치를 정할 때, 가장 세심하게 고려한 것은 뒤의 배경이 될 산세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뒷산과 가람이 일체화된 내소사의 유장한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산맥과 대웅전의 축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능가산의 주봉은 대웅전 바로 뒤가 아니라 서쪽으로 약간 비껴 서 있다. 주봉이 너무 높고 강한 모습이어서 대웅전을 비껴 놓은 것이다. 뒷산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처럼 비껴 놓은 까닭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옛 스님들의 안목은 단지 뒷산에만 머물지 않았다. 멀리 앞산들과 전체적인 지형의 생김새에 맞도록 가람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 전체적인 형국을 살펴야 내소사 건축의 비밀을 풀 수가 있다.

내소사 입구에서 가람에 이르려면, 울창한 전단나무 숲을 1㎞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한다. 원래 가람의 입구에는 대개 이런 울창하고 신성한 숲으로 그윽했으리라. 그러나 일제기의 남벌과 해방 후의 무관심, 그리고 어설픈 개발사업으로 다른 가람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선하고 청량한 숲 속을 지나면 문득 내소사의 넓은 터에 이른다. 우선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커다란 승방의 지붕면이다. 승방은 가람의 동쪽에 있는 것으로, 실제 중심은 서쪽으로 치우쳐 덩그라니 서있는 누각(봉래루)이다. 계단도 정면으로 나있지 않고, 서쪽으로 비켜서 봉래루로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내소사의 넓은 터는 몇 개의 낮은 단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각각 낮은 계단이 놓이는데, 모두가 조금씩 서쪽으로 밀려들어가는 형상이다.

마지막으로 이르게 되는 대웅전 역시, 그 뒤 서쪽으로 밀려 들어가 예의 능가산 주봉이 놓여있다. 전체 지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다. 가람 터 앞으로 빠져나오는 냇물이 동쪽으로 구비쳐 흐르기 때문에, 능가산 주봉에 맞추어 가람을 배치하면 냇물 위에 집들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냇물을 피해 가람을 앉히되, 뒷산의 전체적인 형국에 맞추느라고, 입구부터 조금씩 서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누각과 대웅전을 거쳐 주봉에 이르도록 조작된 것이다.

냇물·뒷산 주봉 피해 입구부터 조금씩 비껴 대웅전·누각등 배치

자연은 꼭 건축에 적합하도록 생긴 것만은 아니다. 어떤 곳은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리한 곳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람들은 꼭 그 터가 좋아서 집을 짓기로 한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라도 뛰어나게 해결했다. 번듯한 터보다는 내소사와 같이 제약 조건이 있는 터를 골라서, 그 장애요인을 오히려 훌륭한 건축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뒷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람을 만들었다면,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변화있고 극적인 공간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내소사는 비록 깊은 산속에 있지만, 매우 넓직하고 평평한 터를 잡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가람의 건물들은 수평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보전만은 날아갈 듯한 팔작지붕을 얹어, 전체적으로 오똑 솟아오른 수직적인 모습이다. 널찍한 대지와 뾰족한 뒷산에 대응되는 대조적 구성이다. 넓은 마당과 낮게 깔린 누각이나 석단들이 인공적인 수평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오똑한 대웅전은 능가산의 수직적인 절벽을 향해 상승하고 있다. 능가산이 뒤에 없었다면, 능가산이 지금과 같이 뾰족한 절벽들이 아니라면, 대웅전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의 가람을 감상할 때, 뒷산의 모습을 함께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된다.

* 본 마당 앞에 놓인 봉래루의 지금 모습은 매우 어정쩡하다. 원래는 지금보다 한자 정도 낮아, 이름만 누각이지 보통 1층 정도의 건물이었다. 경상도 사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각 밑을 통과해 절 안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누하진입'은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이었다. 누하진입의 방법은 경사지에 세워진 가람에 잘 어울리는 기법이다. 내소사와 같이 평지에서 누하진입법을 쓰려면, 누각의 1층 높이를 사람 키보다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뒤편의 주요 법당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을 빚는다. 따라서 전라도-충청도 일대의 평지 사찰에서는 1층 강당들을 세우고 이름만 누각이라 불렀다.

지금의 내소사 봉래루는 일부러 1층의 기둥을 높여서 그 아래로 사람들을 통과하도록 억지를 부렸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머리가 닿을 정도니, 출입이 편해진 것도 아니다. 가람 전체의 수평적 공간감을 이 누각이 까뜨리고 있다. 불과 십여년 전에 바꾸어버린 잘못이다. 승방인 설선당 안마당에 철골조의 구조물을 덮어서, 이 우아한 승방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누각과 승방 모두 원상 회복을 하든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北동포 돕고 세계에 평화 심자"

좋은벗들 등 한·미·일 NGO 공동캠페인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모금·풍물 놀이등 다채

◇서울 명동에서 펼쳐진 북한 동포 돕기 캠페인에는 7살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대학생이 함께 했다. 가운데는 JTS 이사장 법륜스님.

'생명의 씨앗으로 평화의 미래를',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의 싹을 틔우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일·미 공동 캠페인이 펼쳐졌다.

좋은벗들과 한국JTS, 부산 대불련, 청년정토회, 한일청년학생포럼, 포럼 2001 그리고 일본의 재일한국청년연합, 재일한국학생동맹, 일본 시민단체, 미국의 한인회, 한국학위원회 버클리지부, 버클리대 유학생 등 한·미·일 3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2일 오후 1~5시 서울 명동과 인사동, 대구, 부산을 비롯 일본 동경, 오사카, 효고, 미국 LA에서 공동캠페인과 모금운동을 펼쳤다.

길놀이와 굿, 풍물, 북한알기 퀴즈 및 퍼포먼스 등이 어울어진 이번 캠페인은 96년 이후 북한동포 돕기 거리 캠페인, 모금, 강좌와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만난 3국의 단체와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평화만들기의 실천운동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 지난해 말 제3차 '한일청년학생포럼 북한 인도적 지원분과'의 결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JTS, 좋은벗들 등 불교NGO가 앞장서 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운동은 국경, 민족, 이념, 체제를 넘어 우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된 캠페인. 96년 부터 시작된 거리 캠페인, 모금, 강좌와 세미나, 북한 지원 등의 활동이 이제 20세기 냉전의 상처를 치료하고 50년 분단을 통일로,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국제적인 평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명동 캠페인에 참석한 JTS 이사장 법륜스님은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냉전, 분단의 섬 한반도의 문제는 20세기의 국가와 민족을 넘어, 평화와 인권이라는 21세기의 무대 속에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난 20세기 역사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평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태강좌·기행 잇달아

불교환경교육원…20~6월1일 생태학교 개강

29·30일 무주진도리 답사

불교환경교육원은 제18기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 제14맥, 테마생태기행 '흙집 기행' 등 환경모임을 잇달아 개최한다.

'생태적 삶', 새로운 인간' 주제로 열리는 생태학교는 20일부터 6월1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진행되며 성균관대 송항룡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재현 박사 등 14명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한다. NGO의 역할, 동양사상, 수질문제, 국토정책, 생명공학,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등의 쟁점을 다루고 지역운동, 공동체운동, 대안교육, 지역화폐운동, 귀농운동 등 대안적 삶도 살펴본다. 경북 상주의 푸른누리공동체도 탐방한다.

테마별 전문화경강좌인 생명운동아카데미의 주제는 '녹색운동의 이념과 전략', 25일부터 5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안국동 미내사강당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서구의 녹색운동과 동양의 생명운동을 비교하여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본 제반사회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모색한다. 6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녹색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종합 심포지엄도 연다.

생태적 삶을 찾아 떠나는 첫번째 기행인 '흙집 기행'은 29, 30일 1박 2일간 무주 진도리마을로 떠난다. 무주 진도리마을회관과 허병섭 목사의 집, 대안교육공동체인 무주 푸른꿈고등학교도 방문한다. 앞으로 '뒷간 기행', '생태마을 기행', '대안에너지 기행'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02)587-8997

생명잡지 '인드라망' 창간

도법-거지성자 대담 실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1일 격월간지인 〈인드라망〉을 창간했다.

4·6배판 88쪽 분량의 이 잡지는 발간사, 법어, 지상강론, 연대의 글, 화엄광장('생태적 공동체 운동의 현실적 구원을 위해'-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유전자조작의 철학'-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 제언(생협운동을 말한다), 탐방(실상사 작은학교 준비팀), 수필, 사는 이야기, 소식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도법스님과 독일의 거지성자 크터 노이야르의 특별대담은 현대문명은 '무지위에 세워진 욕망의 탑'이라는 공감대 아래 생명과 무소유, 나눔을 강조하는 불교가 현대문명의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연간 1만원. (02)733-1884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원통등 조립팔모등 차갈이등
팔모조립등 육각등 팔모주름등 보관함대

팔모주름등 (핑크)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비단연잎 등 통 완성연등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긴 정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담당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자파 수맥파 차단의 기(氣)인증! "달마도 순금카드"

달마도의 대가 오인법사 원본 작품을 99.9% 순금카드위에 직접 새겨 놓았습니다.

달마도 순금카드(지갑소지용)

앞면 오인법사 달마도
뒷면 ①반야심경②사업번영부③안전운전부④시험합격부

달마도 순금판 표구액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천만불자 보시용품

대한불교조계종 대동불교연합에서 인증한 기(氣)인증서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 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질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cm) 20,000원, 소형(3×5cm) 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 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0cm),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cm)일반 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 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 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 사진, 글씨, 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 구매시 사은품 증정!

제조판매원: 골드타운
고객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02)926-7377, 7315 (24시간 공휴 접수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ldsale.co.kr